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니다'



김기혜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화염동산 식구들에게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여성노숙자 쉼터 '화염동산'

정신질환·신체장애로 고통

남편과 사별하고 시댁에서 버림 받아 가솔한 박미정씨(가명, 45)는 공공근로일 마저 끝났으며 고개를 떨군다. 그런 그녀를, 이수진씨(가명, 38)가 끌어안아 준다. 정신지체자인 이씨 역시 시어머니에게 쫓겨나고는 서울역을 전전하다 이곳에 들어왔다.

기업이나 공장들은 보통 사람들 보다 더딘 작업속도와 현저히 떨어지는 작업능률을 이유로 이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염동산 김기혜 소장은 '매월 모자라는 운영비도 문제지만, 정신지체와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의약품 및 의료 후원과 함께 자활의 디딤돌을 마련해 줄 후견기업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화염동산은 사급세 120만원으로 살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금 6백만원 받고 있지만, 1천만원 넘는 한달 운영비엔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분을 후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탓에 매달 들어오는 후원금은 몇 십만원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잘 먹고 따뜻하게 지는 것은 둘째치고, 생리대, 비누 등 생필품조차도 여유가 없다.

이곳 사람들의 고통이 남다른 것은 대부분이 온갖 병을 한꺼번에 겪는 중복장애인들이라는 사실이다. 선천적인 정신지체는 물론 과대망상, 정신분열증, 정신질환 환과 알콜중독, 위장병 등 각종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을 앓고 있다. 이들을 위해 서울시는 잠실 시립병원과 보라매 병원 등 2곳을 지정했지만, 화염동산과 거리가 너무 멀어 이용할 수 없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은 이들에게 있어 더욱 잔인하다. 여름철에는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라도 있어 그럭저럭 '사람'처럼 산다. 하지만, 겨울에는 그렇지 못하다. 공공근로 마저 끊기는데다, 일반

생활비 턱없이 부족 이들은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 그만큼 지켜있기 때문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마저도 외면당하고 사는 사람들. 후원도 필요하지만 이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자활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후원방법 : 전화 (02)2642-1363(화염동산), 계좌 국민은행 068-25-0009-689(예금주 사단법인 우리는선우)

김철우 기자

1월 17일 (목)

■한국불교연구회 '교사불교연구회' =을 한해 동안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국불교연구회는 오후 3시 경기도 광주 유마정사에서 입제식을 갖고 제24회 전국 초중등교과 교사 불교연구회를 연다. 이 연구회에는 불교연구원장 정병조 교수의 강연, 사경법회 등이 준비되어 있다. (02)3411-6167

1월 18일 (금)

■법장사 중고생 동계수련회 =겨울방학도 어느새 반쯤 지나가버렸다. 이제 서서히 올 한해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확고히 해야 할 때다. 서울 법장사는 18일부터 통도

신행 캘린더

사 반야사에서 동계 수련회를 연다. 이 행사에는 참선, 발우공양, 다도 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다. (02)948-3111

■양정청소년수련관 '무료영화상영' =방학이 심심하기만 한 청소년 모여라!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지난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18일에는 '빌리 엘리어트', 25일에는 '킬러들의 수다'가 방영될 계획이다. (051)868-0750

■터사랑 '공주·부여 답사' =한국 불교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백제. 터사랑이 백제의 고도 공주, 부여 찾기 여행을 떠난다. 공주박물관, 무령왕릉, 부

소산성, 낙화암, 영일루, 부여박물관, 능산리고분... 이정도만 봐도 백제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출발은 아침 7시 30분. 안국역 4번 출구. (02)722-9747

1월 20일 (일)

■광주사암연 '생명나눔 강연' =진정한 자비란 무엇일까. 한철 캠페인, 장기기증 운동, 화장문화 장려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회' 법장사님의 법문을 들어보자. 광주사암연합(회장 벽상)은 오후 4시 광주 실내체육관에서 생명나눔 운동에 대한 법장사님의 강연과 청소년들을 위한 콘서트, 장학금 전달식을 준비했다. (062)376-3223

■맑고향기롭게 '일몰시장' =재활용 의류, 무공해 세제류, 우리 먹거리 등을 팔아 수익금 전액으로 불우 이웃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환경도 지키고 이웃도 돕고 필요없는 낭비도 줄이고... '맑고 향기롭게'는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서울 성북구 감상사 앞 마당에서 일몰시장을 개설한다. (02)3672-5945

■'봄축제' 2차 봉축등 감축회 =성도대일, 열반제일, 출가제일, 부처님 오신날, 가정마다 부처님을 기리는 봉축등을 달아 보는 것은 어떨까. 흔히 볼 수 있는 연꽃등부터,



봄축제위원 1차 강습회에서 월드컵을 기념한 등지속등을 만드는 모습.

올해에는 월드컵도 있으니 축구공 모양 등까지 만들어 보면 더욱 좋겠다.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25일까지 서울 불교회관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2차 봉축등업등 제작 강습회를 연다. 이 행사에는 참가자들이 법륜등, 동자승등, 왕법등, 법고등, 원하는 모양의 등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 (02)725-6641

회장임에도 궂은일 도맡아 처리



우리 절 우리 신도

길상사 보현회 전영숙 회장

10일 밤 11시. 하루 종일 길상사 절 살림을 꾸리느라 웃을 벗기도 귀찮을 만큼 피곤하지만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탐색창을 연다. 혹시 내일 보현회 회원들에게 해 줄 좋은 말이 없을까, 내일 만나는 불자들에게는 어떤 법구를 말해주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 해탈심 전영숙 보살(55)은 졸음을 참아가며 화면을 바라본다.



전영숙보살이 보현회 회원들과 함께 공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남편도 이젠 후원

전 보살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다. 새벽 5시 일어나 9시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직장으로 보내고 집안살림을 정리한 후, 곧바로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 가서 점심공양을 준비한다.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공간에서 바쁘게 일한 후 자신은 오후 3시가 돼야 간신히 점심을 먹는다. 4시부터는 길상사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저녁 공양과 내일 쓸 음식을 미리 준비한다. 그런 후 경조사가 있는 회원들을 일일이 챙기고 나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빨라야 7시. 저녁 준비와 함께 이런저런 잔일을 하다 보면 10시가 훌쩍 넘는다.

이러기를 4년째. 당연히 길상사여 기저기 전 보살의 손때가 묻지 않는 곳이 없다. 김치와 된장에 전 보살의 손맛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설법전 문지방이며, 극락전 창호지며, 어느 하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작년부터 길상사 자원봉사자 모임인 보현회 회장 소임을 맡은 이래 전 보살은 공간 봉사활동에 서부터 수천 명이 참석하는 대중법회나 수련회의 뒷일을 도맡아 처리해왔다.

보현회 회원 대덕화 보살은 "전 보살은 회원들에게 웃는 모습을 보

여주려고 애를 쓰죠. 가족이나 어려운 일을 하는 회원들에게 찡그린 표정을 안 보여줘야 한다고 그래요. 또 궂은 일이나 힘든 일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나서죠. 회원들은 전보살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욱 신이 나서 일을 해요"라며 전보살을 칭찬했다.

그러나 전 보살이 이렇게 도맡아 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까지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처음에는 평생 교회를 다니신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남을

위해 봉사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처음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남편이 먼저 공양 때 합장을 할 정도죠"라며 웃음짓는 전 보살은 오늘의 길상사를 있게 한 일등공신이다.

전 보살이 길상사 신도가 된 것은 97년 길상사 개원법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여고시절 학내 불교동아리에 들어가면서 불교에 입문한 뒤 참선과 수련회 등 다양한 신생활으로 불심을 키워온 전 보살은, 지금은 보현회의 왕언니로 통할 만큼 신심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백 명씩 드나드는 길상사

올해 꼭 선방가서 참선수행 할 터

의 살림을 도맡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게다가 보현회 회원들 간의 단합에도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몸이 두개라면 좋을텐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다.

보현회 활동에 시간이 많이 빼앗긴 나머지 경전 한 구절 보기 힘든 날이 많아지면서 요즘들어 전 보살은 부처님을 멀리하며 사는 것 같다는 생각에 슬그머니 걱정도 된다고 한다.

"회장 소임을 맡고 있는 이상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겁니다. 많은 것을 배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추천의 말

덕조 스님 길상사 주지



전영숙 보살은 어떤 일을 해도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다. 회장을 맡기 이전부터 길상사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한편, 자원봉사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길상사 보현회 회장으로서 능수능란하게 회원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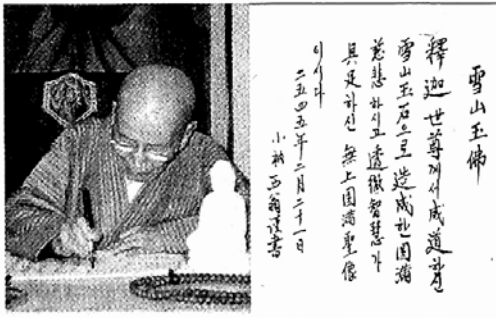
자원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살심, 자비심이 넘치고 자기희생이 가능해야 할 수 있다. 길상사가 처음 개원했을 때부터 법회는 물론 새벽기도, 수련회에 꼬박꼬박 참석하며 길러온 신심을 바탕으로, 전 보살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곳은 일을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한다. 이것은 전 보살의 돈독한 신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다. 길상사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맑고 향기로운 분위기는 바로 전 보살과 같은 훌륭한 신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만 올해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선방에서 참선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전 보살은 올해 이런 서원을 세웠다. 이제부터는 바쁘다는 핑계로 불교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m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 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33-6 새한빌딩 401호 Tel 서울(02) 854-8834 부산(051) 637-2333 Fax 서울(02) 839-2185 부산(051) 637-6888



고불총림법장 서울 큰 스님 /추천서

